'전북의 중추도시 전주, 특례시 지정해야'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도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 로 지정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 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전주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학계 · 행정 · 언론 · 시민의 지혜를 하 나로 모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국 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 정 세미나 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위원회 위원과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학계,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열띤 토 론이 펼쳐졌다.

전주시보건소, 공공보건 의료 전문가와 간담회

전주시가 계층과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공공의료복지 체계' 를 구축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지난 8일 공공의료전문가로 알려진 조승연 인천의료원장과 권근상 전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장봉석 복지마을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 데 공공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의료복지란 취약계층과 취약지 역을 중심으로 제공돼온 접근형태가 아닌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제공 을 위한 통합적 접근형태를 의미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 공공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 의료서비스의 취약점 및 해결책 구상 △공공과 민간의료의 협업 모델 구상 을 주 내용으로 토론을 펼쳤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의료복 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초청 세미나 개최 행정·학계 등 발제 통해 지정 필요성 한목소리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지정에 대한 문 제점을 지적한 뒤, Δ 중앙과 지방의 특례정책 동향소개 △일본의 지정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 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 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은 다른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지 방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자료 를 인용, "지난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 기준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인구만을 고려 한 기존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특례 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나왔다"며, "사업체 수와 주간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 내 지방행정 전문가의 70.37%는 인구 만을 고려한 특례시 기준에 반대 의 격을 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 수 전주시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균 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 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

김 시장은 또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 의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해 국가예산 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현실을 지적하고, "광역시 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 발전 치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 로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 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 라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 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 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성천 전북도 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보다는 종합적 행 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 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 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 으로 오랜기간 차별을 받아온 전북 의 발전을 이끌어, 전주시민과 전북 도민, 우리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 단한 집을 짓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 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 /송효철 기자

'새벽까지 술 마셔서' 여친 폭행한 30대 입건

전주 만성초교에서

전교생 1209명 중 28명이

구토 · 복통 · 설사 증상

환자가 발생했다.

사가 개별지도했다.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전주만성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지난 8일 오후 5시경 도교육청에 따

르면 전교생 1209명 중 28명이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을 나타났다고 밝혔

이 중 1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전주만성초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학사운영을 유동적으로 적용

검토할 예정이며, 8일은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다만, 돌봄학생들만 담임교

관계지는 "입원 치료중인 학생은 A

형 간염으로 입원했는데 식중독 증상

이 있어서 같이 치료하는 중"이라고

한편, 이번 식중독 관련 역학관계 조

사는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

나머지 학생들은 통원치료 중이다.

밤 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는 이유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때린 3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8일 폭행 등의 혐의로 A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6분경 완 주군 이서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 모(20대·몽골)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 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며 놀다 새벽에 들어오자 홧김에 이 같은

경찰은 당시 B씨가 폭행 신고를 했 다가 갑작스레 취소한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실시

전북경찰이 고속도로 사망사고와 주 로 연관된 화물차에 대해 교통안전 활 동 강화를 실시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 지구대는 2019년도 고속도로 교통 안 전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차에 대한 교 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

지난해 전국 교통 사망자는 3781명 으로 2015년 4621명을 기록한 후 최근 3년 내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지 만, 고속도로에서의 시망사고는 250명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차종별 분석에 따르면 화물 및 특수차가 연관 된 사고 건수가 75.5%에 달해 주된 사 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9지 구대는 올해 고속도로 교통안전의 목 표를 '화물차 교통안전 활동 강화'로 삼고, 중점추진 사항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으로 ▲화물차 정비 명령 및 수시검사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 ▲알람 순찰 등이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속도제한 장치 변경에 대한 단 속도 벌인다.

정진영 전북청 9지구대장은 "화물 차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사고 취약 요소 에 대한 심층 분석 후 이를 개선토 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석훈 기자 말했다.



세계 여성의 날… 전북여성대회 개최

 $3 \cdot 8$ 여성의 날 20차 전북 여성대회가 8일 전주 경기전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 여성대회 조직위원회와 관계자 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올해도 양성과정 운영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지역특화 인력 양성

전라북도무화관광재다(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지정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 법'에 따라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모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심의결과 재단을 비 롯한 총 7개 기관이 양성기관으 로 선정됐다. 재단은 2017년부터 2018년에 이어 사업을 진행하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 정 ·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전북권역'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

재단은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 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 직 8명, 창업 8명 등의 성과를 올 려왔다.

특히, 2018년 최종결과발표회에서 는 완주문화재단 교육생인 장재영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수료생 54명, 취·창업 15명 이상을 목표로 지역맞춤 현장

올해 전북권역 문화리더양성과정 은 "창의적 삶을 실현하는 문화 리 더"라는 슬로건으로 6개월간 공통 교육과정과 주제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재단이 운영하는 공통교육과정은 통합이론교육, 집중워크숍, 교류워 크숍, 아트잡매칭데이 등으로 진행

아트잡매칭데이와 집중워크숍은 협력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와 함께하며 기초문화재단 3개 기 관이 각각 운영하는 주제별 특화교 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자기 주도프로젝트, 기관배치)으로 구성

전주문화재단은 '생활문화 매개 자 양성 배치'를 주제로 협력기관 인 전주문화의집협회와 함께 생활 문화매개자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 행한다.

또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도시 재생과 메이커커뮤니티'를 주제로 협력기관인 익산메이커스페이스와 함께 현장실무형 메이커커뮤니티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자양성'을 주제로 협력기관 인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씨잇 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 지역문 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

한편, 전북권역 문화리더양성과 정은 사업비 교부가 완료되는 4월 초부터 전라북도 내의 예비 문화전 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 및 선발에 들어가며, 주제별 10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지역문화에 관심 있 고, 문화전문인력으로서 성장을 희 망하는 자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 발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 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정책 기획팀(063-230-7422)으로 확인할 /송효철 기자 수 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기관 공모

전주시, 오늘부터 22일까지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9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모집한다.

이 시업은 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 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교육 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기관 자격조건은 전주시 소재 폴리텍 대학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시 방, 건설기계, 전산세무회계 · 전산건 축제도 등 인력수요가 많고 취업 가 능성이 높은 4개 과목으로 우선 선정

또한, 시는 만18세~49세 이하의 미 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인원 총 84명(4개 과정, 과목별 21명)을 선발

선정된 교육기관에는 교육생 1인당 월35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되며, 교육생 에게도 월35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된 다. 시는 교육 후에도 취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은 "이번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을 통 해 채용기업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하 고 청·장년실업자에게 교육에서 취 업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기술인력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www.jeonju.go.kr)의 공고를 참고하거 나,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 /송효철 기자 로 문의하면 된다.

결혼 반대 어머니 살해 30대 구속기소

결혼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 라 살해한 30대가 붙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8일 존속 살해 혐의로 A모(39)씨를 구속기소했 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경 전 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모(6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결혼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빨랫감을 담는 플라스틱 통에 B씨의 시신을 넣 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 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 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추궁하 자 범행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 /강석훈 기자 다.